

서울지역 한 대학병원에 내원한 폐결핵환자에서 약제내성과 예측인자

한양대병원 내과 김미옥*, 김태영, 손장원, 윤호주, 신동호, 박성수
결핵치료 실패의 주요원인은 항결핵약제 내성과 약제의 조기중단이다. 결핵약제의 내성은 1980년대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최근 4년간 한양대학서울병원을 내원한 폐결핵환자들의 결핵약제 내성율과 예측인자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1999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한양의대 서울병원에 내원하여 결핵균배양과 약제감수성이 시행된 239명에 대한 약제내성율과 나이, 성별, 과거치료력, 흉부사진상 중등도, 동반질환과의 연관성을 질료기록을 통해 후향적 고찰을 하였다.

230명중 52명(21.4%)이 적어도 하나의 약제에 내성을 보였고 30명(12.6%)이 INH와 RFP에 동시에 내성을 보였다. 초치료환자보다 재치료환자군이 하나 이상의 약제내성과 streptomycin과 capreomycin을 제외한 항결핵약제에 대한 내성이 의미있게 높았다($P<0.05$). 다제약제 내성을 포함한 결핵약제내성은 과거치료력과 나이분포에 따라 의미있는 연관성을 보였다($P<0.05$). 재치료군내 약제내성은 나이분포에 따라 의미있는 연관성을 보였다($P<0.05$).

한가지 이상의 약제내성율은 1980년 이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한 수치와 비교시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약제내성이 나이 분포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초치료군과 재치료군의 연령분포를 반영하다고 생각된다.

난치성 폐결핵 환자의 치료 및 예후

국립목포병원 내과학교실

최성일, 이보영, 이현석, 공석준, 박주홍, 손말현

목적 : 규칙적인 표준 항결핵 치료로 대부분의 폐결핵은 1년 이내에 치료될 수 있지만, 극소수는 1년이상 치료해도 객담에서 결핵균이 배출되는 난치성 폐결핵 환자로 남게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선 다양한 표준 항결핵 요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만성적으로 결핵균이 배출되는 난치성 폐결핵 환자에 대해선 특이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문헌도 드문 실정이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객담에서 만성적으로 결핵균이 배출되는 폐결핵 환자에서 난치성 폐결핵을 진단 후 임상 양상과 방사선학적인 소견 및 폐기능 검사소견의 변화 양상의 조사를 통해 난치성 폐결핵 환자의 치료 지침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방법 : 진단 당시 객담에서 항산균 도말 양성을 지닌 결핵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로 각 환자는 약제감수성 결과에 따른 가장 적합한 항결핵 약제로 규칙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시작 11개월과 12개월(재치료 실시 8개월 이후)에도 객담에서 결핵균이 배출되었다.

결과 : 대상환자의 대부분은(87%) 남성이었고, 평균연령은 47세였으며, 최초 진단 후 평균 13년(2년-50년)이 경과되었다. 난치성 폐결핵으로 진단 후 평균적으로 24개월(2개월-80개월)의 임상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대부분의 항결핵 약제에 저항성을 보였다. 특히 isoniazid(94.3%)와 rifampin(88.6%), prothioamide(88.6%), ethambutol 및 ofloxacin에 높은 저항성을 보였고, 감수성 약제 사용 유무(63.9%가 감수성이 있었음)나 치료 약제 종류에 무관하게 특이한 임상 경과를 관찰되지 않았다. 방사선 소견에선 대부분(89.1%)에서 특이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85.7%에선 공동이 관찰되었으며, 78.1%에서 중증폐결핵을 나타내었다. 제한성이나 복합성 양상이 대부분을 나타냈던 폐기능 검사 소견이나 동맥혈 산소농도에서도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4.3%에선 수술적 치료로 결핵균이 음전되었다.

결론 : 일정기간 항결핵제로 충분히 치료받은 난치성 폐결핵 환자의 임상경과는 급격한 악화나 호전은 보이지 않았기에, 난치성 폐결핵 환자가 충분한 항결핵제 치료를 받았으면 예후는 불량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난치성 폐결핵은 완치 유무에 무관하게 진단 후 충분한 항결핵제 치료가 추천되며, 환자 자신의 치료도 필요하나 타인에 대한 전염의 차단도 중요하리라 추정된다.